꿈과 각성, 몽타주, 이미지 기술

Dr. 강수미 (미학)

5강

1. 꿈과 각성

"알레고리에 대한 벤야민의 적확한 규정은 알레고리를 역사적 변증법과 신화적 자연의 형상으로 파악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알레고리적 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알레고리 속에서 관찰자는 경직된 원(原)풍경으로서의 역사의 죽은 얼굴(facies hippocratica)을 마주하게 된다." (V/1, 576)

"어떠한 유년기든 인류에게 위대한 것,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제공해준다. 어떠한 유년기든 기술적 현상들에 대한 흥미, 온갖 종류의 발명이나 기계 장치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기술의 성취들을 오래된 상징 세계와 연결시킨다. 자연의 영역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연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단, 자연에 있어 이러한 연결은 새로움이라는 아우라 속에서가 아니라 익숙한 것이라는 아우라 속에서 만들어진다. 기억, 유년기 그리고 꿈 속에서." (V/1, 576)

벤야민이 정의하는 바, "변증법적 사유는 역사적 깨어남의 기관(Organ)"(V/1, 59)이다. 또한 '각성'은 "하나의 시대에서 진정으로 풀려나는 것"(V/2, 1058)이다. 역사적 각성의 기관인 변증법적 사유로 벤야민이 해체하고자 한 것은, 작게는 자본주의 상품 물신이다. 그러나 크게는 그러한 상품 물신을 기제로 19세기, 나아가 벤야민의 시대인 20세기 사회 . 정치 . 문화 . 예술의 현실까지 미망의 잠에 빠뜨리

고 있는 '자본주의적 신화'다. 반면에 그가 20세기 현재에 일깨워 현재화하고자 하는 것은 19세기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된 원사의 기억, 즉 '지배와 착취가 없고, 계급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소망이미지'다. 요컨대 전자가 기만적 꿈이라면, 반대로 후자는 유토피아적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 각성이 변증법적 사유를 통한 신화와 기만의 파괴를 의미한다면, 후자에서 각성은 변증법적 사유를 통한 '과거/인류의 유년기적 꿈의 기억하기'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진행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적인 것이며<,> 비약적인 것이다. - 변증법적 이미지만이 진정한(따라서 태곳적인 것이 아닌) 이미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만나는 곳이 바로 언어다." (V/1, 577)

벤야민에서 각성은 꿈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꿈을 깨어남으로 경험하고, 깨어남을 꿈으로 완성하는 변증법적 현재화다. 이것이 그가 모더니티 계몽을 위한 "각성의 기술"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고 명명하는 그 꿈이 진정으로 적용되는 현재를 깨어있는 세계로 경험하는 기술"이라 설명한 이유였다.(V/1, 490; 491) 과거의 꿈은 현재에 작용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현재의 미망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각성이다.

2. 몽타주

"문화사적 변증법을 위한 작은 방법론적 제안. 어떤 시대든 다양한 '영역'을 특정한 관점에 따

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쉽다. 예를 들어 한쪽에는 어떤 시대의 '생산적인', '미래를 내포한', '생동감 넘치는', '긍정적인' 부분이 놓이며, 다른 한쪽에는 쓸데없고, 낡은, 쇠퇴해가는 부분을 놓는 식으로 말이다. 게다가 이처럼 적극적인 부분의 윤곽은 그것을 소극적인 것과 대조시킬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부정적인 것은 생동감 넘치는 것, 적극적인 것이 드러나는 밑바탕이 됨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처럼 일단 배제된 부정적인 부분에 다시 새로운 구분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관점(그러나 기준이 아니다!)의 전환을 통해 그러한 부분에서도 새롭게 긍정적인,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부분이 출현하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계속된다. 과거 전체가 어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복원(Apokatastasis; 성좌의 재출현) 속에서 현재 속에 참여할 때까지." (V/1, 573)

"'진보' 개념의 극복과 '몰락의 시대'라는 개념의 극복은 동일한 사항의 양면일 뿐이다." (V/1, 575)

"진보 이념을 자체 내에서 무효화해온 역사 유물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적 목표 중의 하나로 봐도 좋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역사 유물론이 부르주아적 사유 습관과 명확하게 분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역사 유물론의 기본 개념은 진보가 아니라 현재화(Aktualisierung)다." (V/1, 574)

이제까지 논의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벤야민의 변증법은 양극단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 서로 정립/반정립의 연관관계로 있는 데서 의미의 급변을 모색한다. 이것의 이미지 기술이 '몽타주'이다. 벤야민은 이 이미지 기술의 이론적 입장을 위에 인용한 "문화사적 변증법을 위한 작은 방법론적 제안"이라는 단장(短章)에 밝혀두었다.

이 방법론은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인식에 대한 '시각의 교정술' 같은 것이다. 벤야민은 이 변증법의 관점으로 17세기 바로크 비애극을 구제했고, 19세기의 서정시인 보들레르를 구제했다.

특히 「중앙공원」(1939), 「샤를 보들레르 - 고도 자본주의시대의 서정시인」(1938 「보들레르에서 제2제정기의 파리」, 1939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같은 저작들에서 보듯 벤야민은 보들레르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점차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던 과거 한 시대의 저변에 흐른 정서와 지각 양태, 사회적 삶과 문화 예술에 작동하기 시작한 산업 자본주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다면적으로 반응했던 한 예술가에 대한 몽타주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벤야민은 몽타주 개념을 대표적으로는 초현실주의, 러시아 영화 같은 근대 아방가르드 예술이 구사한 한 가지 형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개념으로 과거 19세기 현존의 불안정하고 기만적인 표현을 문제시했다. 몽타주의 양가적 사용 가능성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으로 벤야민은 몽타주 기법이 가상적 연관관계들에 "개입함으로써 맥락을 중단"시키고, "환영(Illusion)을 저지"시킨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심지어 완벽한 권리"를 갖춘 진보적 형식이라 평가했다. 이런 측면에서의 몽타주는 브레히트의 서사극이 그렇듯이, "실험적 배치"이며, 중단을 통해 "상황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화"에 선행한다.(Ⅱ/2, 697-698) 그러나 완전히 반대되는 몽타주도 있다. 기본적으로 몽타주는 상이한 시간과 공간에서 추출된 이질적인 것들을 동시효과를 위해 중첩시키는 재구성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구성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몽타주는 구성요소들을 절묘하게 뒤섞음으로써, 양립불가능과 모순의 증거, 구성 내지는 조작의 증거를 은폐하고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의 몽타주 기법을 모더니즘 예술뿐만 아니라 광고나 정치선전이 쉽게 동원하고 이용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 의식에서 환영의 작용을 저지시키는 것과 같은 해방적 기능이 아니라, 상품물신과 유행, 권력자 숭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조장

하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기능한다.

몽타주가 현대예술의 한 방식일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점차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물화되어감에 따라 집단의식은 신화적 꿈에 잠기고, 산업 기술에 의해 지각세계는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단순한 재현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그 핵심 요인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몽타주는 은폐된 인간관계의 물화상태를 "폭로"하고, 신화적 꿈을 각성시키며, 기능적인 것 속에 수렴돼버린 본래 현실을 끄집어내는 기술로 쓰여야 한다. 즉 몽타주는 "무엇인가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인 것이다.(Ⅱ/1, 383-384)

3. 이미지기술

"이미지들이 역사적 지표를 갖고 있다는 말은 단순히 이미지가 특정 시대에 고유한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특정 시대에만 해독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처럼 '해독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지의 운동이 내부에서 어떤 위기/중요(kritisch) 지점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 해독된 이미지, 즉 인식 가능한 지금 속에서의 이미지는 모든 해독의 기반을 이루는 위기/중요하며 위험한 순간의 각인을 최고도로 띠고 있다." (Ⅴ/1, 578)

"이 작업(Passagenarbeit)에서 본래부터 중요했던 점: 유물론적 역사 서술이 전통적인 역사 서술보다 훨씬 더 나은 의미에서 이미지로 충만함을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Ⅴ/1, 578)

"결국 역사적 유물론의 중심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는 무

조건 역사의 구체성을 희생시켜야만 획득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강화된 구체성과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의 성취를 결합하는 일이 가능한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몽타주 원리를 역사 속으로 도입하는 일이 될 것이다." (V/1, 575)

이미지와 인식, 꿈과 각성, 역사 서술과 이미지적인 것의 비약, 진보와 몰락 등을 개념적으로 몽타주하는 벤야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모든 문화적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려 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에 서있다. 그는 역사를 어떤 강령적인 관점으로 결정화하는 대신 역사에 몽타주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적 구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체 역사를 구성한다. 몽타주는 그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효과적인 지각과 사유의 변증법적 방법론이었다.